

광주 대형사업장 메르스 예방 ‘초비상’

기아차·삼성전자·금호타이어·백화점·대형마트 ...

행사 취소하고 마스크 보급... 손 소독제 비치·포스터 부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35명으로 늘어나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일하는 광주지역 대기업 사업장과 백화점·대형마트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하계수련회 등 준비했던 행사를 연기 및 취소하고, 개인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7000여명이 근무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메르스 환자가 확산하자 최근 전 임직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 공장의 다중이용 시설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부서별로 체온계를 지급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이용해 메르스 예방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 곳곳에 메르스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질병 방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조만간 4개 출입문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4000여명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메르스 예방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내부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행사 및 부서모임을 연기하도록 했다. 각 공장마다 손 세정제를 비치해 개인 위생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 출장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토록 권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역시 임직원에게 마스크 배포를 준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보건담당부서를 통해 메르스 관련 지시사항을 담은 안내문자를 직원들에게 시시각각 발송하고 있다. 공장 내부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메르스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삼성전과 현대·기아차는 신입사원 하계수련회도 연기했다. 삼성은 4~5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 예정이던 신입사원 하계수련회를 잠정 연기했으며 현대·기아차는 9일부터 나흘간 계획했던 제주도에서의 하계수련회를 미뤘다.

광주·전남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지역 유통업체 역시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쇼핑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한층 강화된 위생관리 지침을 내려 시행 중이다. 이마트는 신선식품 작업장 근무자나 시식사원의 경우 100%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신선매장 근무자는 작업장을 출입할 때마다 손소독을 하고 매장 근무자는 화장실 출입 이후 손소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쇼핑카트와 점포 출입구 등에는 알코올 손소독제 분무기와 종이타월을 비치했고 무빙워크 벨트(손잡이) 부분과 푸드코트의 탁자와 의자 등에도 대해서도 하루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고객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쇼핑카트 열과 화장실 등에 손세정제를 비치했다.

광주신세계 등 지역 백화점들도 출입문,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간이 의자, 화장실,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대한 청결 유지를 강화하고 손 세정기 비치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해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등 지역 백화점들도 출입문,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간이 의자, 화장실,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대한 청결 유지를 강화하고 손 세정기 비치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수가 35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인천공항 아시아나 항공 격납고에서 항공기 내부에 소독·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 中 최대 발전사와 해외사업 개발 MOU

한국전력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발전회사인 중국화능집단공사와 해외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산업컨퍼런스(CEPSI 2014)에서 두 회사가 체결한 ‘친환경 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한전과 중국화능집단공사는 앞으로 ▲해외 발전사업 공동 개발 ▲화력발전 분야 공동 연구 ▲한중 간 전력산업 경제

영 분야 공동 연구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전 전력연구원과 서안열공 연구원유한공사 간 화력발전 분야 기술개발 협력과 한전 경제경영연구원과 화능기술경제연구원 간 연구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오늘부터 ‘남도명인 우수식품전’

광주신세계의 지역상생 기획행사인 ‘남도명인 우수식품전’이 5일부터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열린다.

14일까지 진행되는 남도명인 우수식품전은 광주신세계가 광주와 전남도 등과 협력해 광주·전남 지역의 명인이 직접 만든 전통식품의 맛과 전통,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확대를 돕기 위해 진행되는 상생경영 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2014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치명장 윤경미 명인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대

한민국 식품명인’ 등 총 20인의 광주·전남 지역 식품명인이 참여해 떡, 전통주, 장(醬), 차(茶) 등 총 190여점의 남도 우수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우수전통식품 전시와 함께 행사 주말 기간(5~7일, 12~14일) 1층 컬처스퀘어에서 명인들이 직접 나와 전통식품 제조과정을 설명하고 시음·시식회를 갖는 등 ‘명인 초청 스페셜 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72.86 (+9.70)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1)

▲ 코스닥 704.56 (+7.59) ▲ 환율 (USD) 1113.90원 (+9.20)

지스트 바이오 벤처기업 ‘애니젠’

〈광주과학기술원〉
창업 15년만에 코스닥 상장 준비

의약품 펩타이드 등 개발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의 바이오 벤처기업 애니젠이 코스닥 상장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지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 지스트 생명과학부 김재일(56)교수가 중심이 돼 창업한 애니젠이 15년 만에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원료인 펩타이드(peptide)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개발에 주력해온 애니젠은 1999년 과학기술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사업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첫발을 내디뎠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단백질의 기능적 최소 단위로서 암, 당뇨, 골다공증,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 치

료제 등의 중요한 의약품소재다.

애니젠은 10여년간 펩타이드 양산 기술을 연구한 결과 2010년 국내 최초로 전남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에 펩타이드 의약품 전용 GMP(의약품 우수제조시설·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을 구축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펩타이드 의약품 4종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해 본격적인 국내의 판매를 앞두고 있다. 펩타이드 의약품 원료의 경우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생산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진통제의 일종인 지코노타이드(ziconotide)는 kg당 30억원에 달하며, 당초치료제인 엑세나타이드(exenatide)는 kg당 8~10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LH, 광주 용산지구 공동택지 용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4일 광주시 동구 용산지구 공동주택 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전용면적 60~85㎡형, 5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다. 총 부지는 3만1000㎡, 공급예정 가격은 326억원으로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용산지구는 제2순환도로와 지하철 1호선이 인근에 있고 주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인 양호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용산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며 교통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입찰 신청과 개발 등의 공급 과정은 LH 토지청약시스템(land.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오는 22일부터 입찰신청을 받아 24일 개찰하며 계약체결 일정은 25일부터 시작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65세·3ha 이상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 가입

광주·전남 2만호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가입연령 완화 외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

다. 65세 이상 3ha 이상의 농지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이상 농가 2만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농지연금사업 신청 및 문의사항은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북총판 | 010-3853-5460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마스코트 제품 및 몰티버백 휘급원을 위 출판에서 오직하고 있습니다. (미리, 편의점, 전차당해 등 담배스매인 지점을 받으신 모든 점주님)